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17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3.09

미션
MISSION

사랑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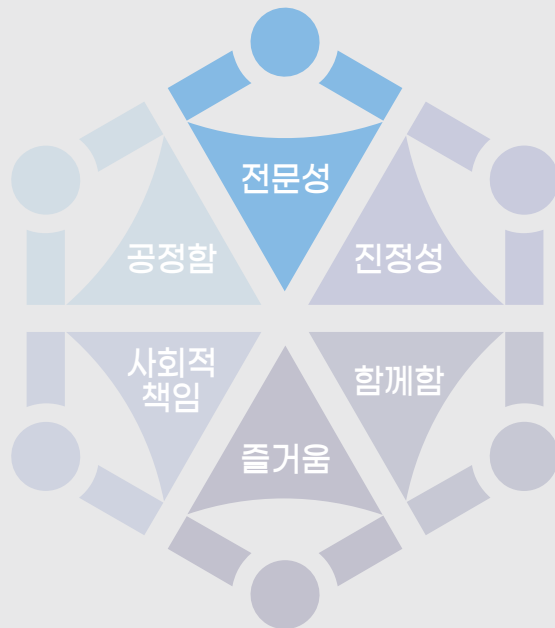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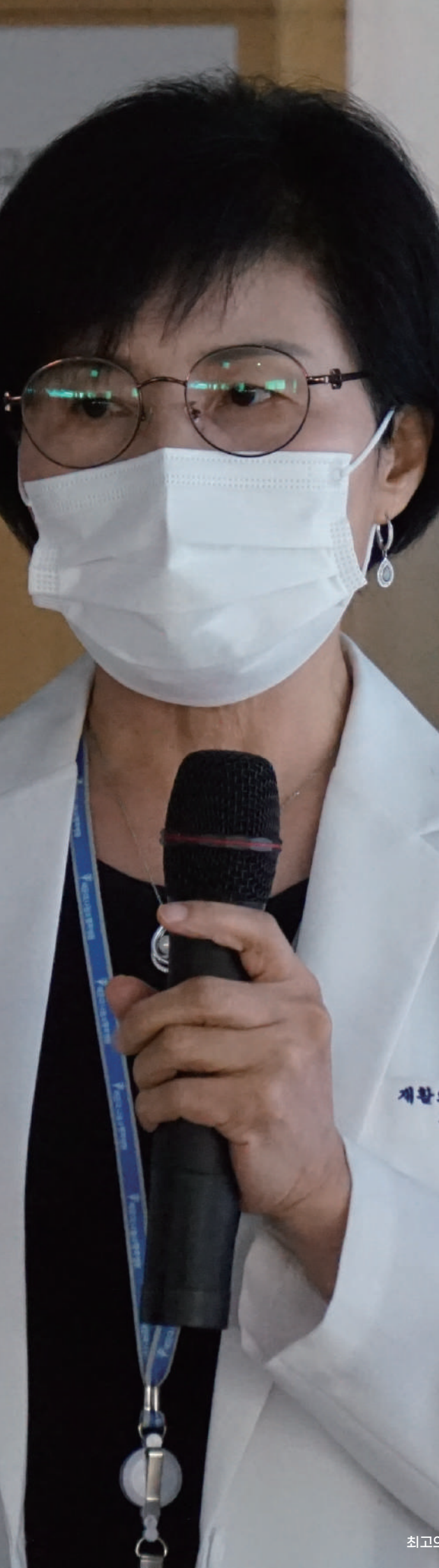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재활의료 김연희 원장님 특강 뇌졸중재활코호트 연구 결과와 회복기 재활의 중요성 (09.08)



9/8(금) 점심시간에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김연희 재활의료원장님이 ‘ 뇌졸중 재활코호트 연구 결과와 회복기 재활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에서 코호트(어떤 집단의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 연구를 12년 전에 시작해서 현재 12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실제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뇌질환 환자들의 재활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질환인데, 뇌질환 환자분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뇌졸중(뇌경색, 뇌출혈)입니다. 그렇지만 근무하고 계신 직원 분들도 이런 환자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얼마나 가지게 되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수년이 경과한 다음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볼 기회는 많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으로 오늘 특강을 준비한 이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보는 것은, 우리(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가 회복기 재활 참여자(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하고 있는 치료적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우리 참여자분들에게 앞으로 보다 나은 치료적인 제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 미국에 방문했을 때 부산에 신 교수님(이름)이랑 같이 갔었고, 신 교수님 옆에 어떤 젊고 똑똑한 전공의 한 분이 같이 왔었는데, 이 병원에 부임하고 나니깐 그때 그 젊은 청년이 지금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신 '서희'진료부장님이었다며 에피소드



리더스미팅

(09.12)

9/12(화) 점심시간에는
4층 재활치료실에서
9월 리더스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영부 총무팀장님의 진행으로
시작하였고, 식순은 병원장님
여는말, 조직도 개편과 하반기
주요일정, 위임전결 개정사항 안내,
임명장 수여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백선미 병원장님께서 우리 병원이 현재 직군 단위, 팀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기능 단위로, 센터 단위로 중심을 이동하였고, 하반기를 거쳐 완성하여 내년 도약식에 공유하고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조직문화성장실 박선미 실장님이 조직체계에 대한 이해와 하반기 중요 일정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먼저 조직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를 나누고, 현재 조직체계 현황을 공유하고, 바뀌진 부분은 어떠한지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영분석실 이태한 실장님이 위임전결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분야별 위임전결 결재선 시행 안에서부터 결재선 개선 관리 방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셨고, 첨부파일로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탑재하고, 조직도상 대표 색상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고 덧붙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부임하신 진료과장님들과 승진자들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였고, 이번에 새로 개편된 조직도에 맞춰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된 재활관련 센터장님들에 대한 임명장도 같이 수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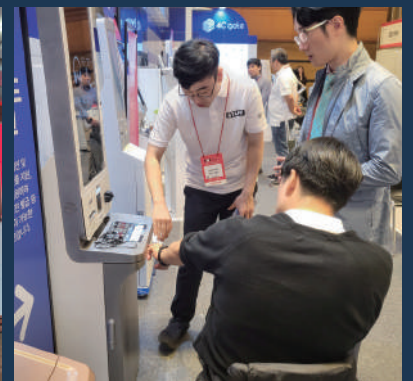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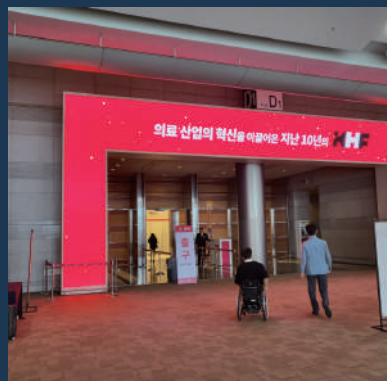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추계학술대회 (09.15)



코엑스 3층에서 진행되는 2023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추계학술대회는 1,2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회복기 의료에서의 비사용증후군에 대한 수가 및 시범사업적용안내, 의학적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2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와 재활의료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귀 사례, 재활코칭, 방문재활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김연희원장님께서 2부 순서의 자장으로 진행을 이끌어 주셨고, 성민규재활코치팀장의 재활코칭에 대한 주제로 의미있는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K- HOSPITAL + HEALTH THECH FAIR 행사로 스마트병원시스템에 대한 불거리, 시연등을 통한 실제 모델등을 관람, 경험하고 왔습니다.





간병 부담은 줄이고
입원서비스 질은 높이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6생활동 확대운영 오픈식 (09.11)

9/11(월) 6병동(생활재활센터)에 정식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조촐한 오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선영 간호팀장님이 그 동안의 빠듯한 일정에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오늘 이 자리를 하게 되어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2018년 5병동에 개소하고, 2021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2023년 다시 한번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선미 병원장님께서 한 말씀해주셨는데요. 단순히 간병비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병상 수의 확장에 대한 의의가 아닌, 7,8인실의 5층 통합간병에서 4인실의 6층 통합간병,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4인실의 7,8층의 흐름속에서 중증도의 차이에 따른 환자 중심에 맞는 입원과 치료가 이어질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연희 원장님께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은 병원의 부담이 많은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도전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주신거에 감사하고 축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중증도가 높아짐에 따라 재활간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질 것을 대비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재활간호를 배우는 것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브랜딩실 고객경험보고서 및 개선 사항 발표

(0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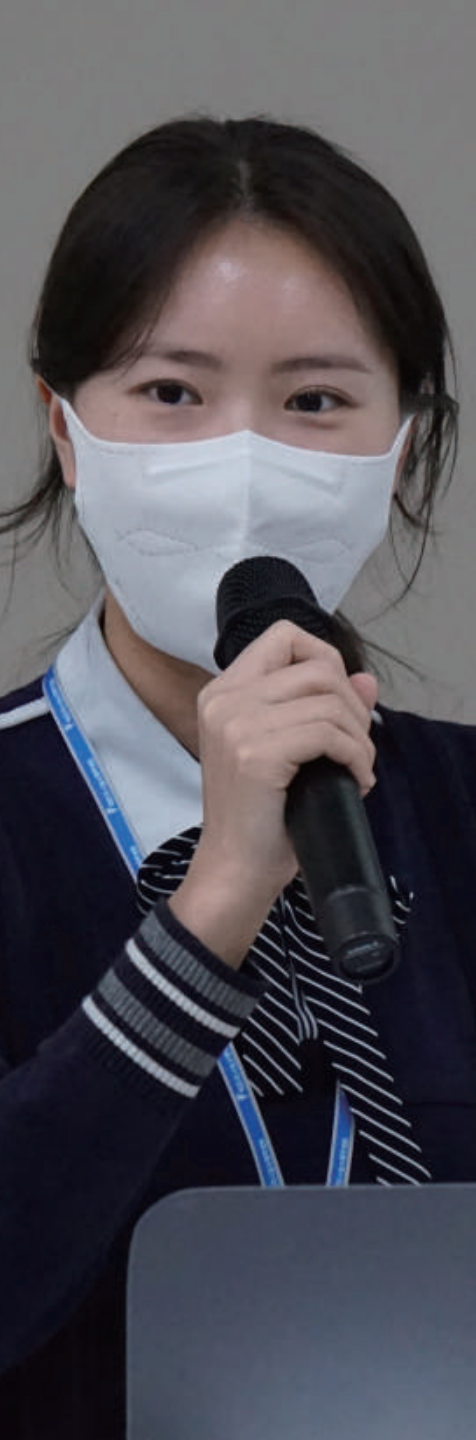


브랜딩실 김현하 팀원이 3층 외래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고객경험보고 및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고객경험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병원 3층 센터별 고객경험 조사 개요, 고객 여정별 고객경험 개선 여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고객경험 조사는 현장 모니터링, 고객 인터뷰, 현장 설문조사, NPS조사, 내부직원 의견 등으로 진행했으며, 고객이 내원 준비에서부터 방문, 입구, 접수, 상담, 대기, 진료, 수납의 단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한 뒤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브랜딩실에서는 실제 4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 해서 유방갑상선센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경험 조사를 실시하였고, 6월 발표를 통해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내과내시경센터는 6월 중순에서 말까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에 발표 후 현재 개선중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는 7월~8월에 조사해 지난주에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아직 개선 시작 전 단계에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환자 안전 낙상관리

해운대 나남과 행복 병원 QP5팀_2023년



6생활동 간호간병통합병동 신입직원 교육 (09.11~15)

간호간병확대병동 운영을 위한 신규직원에 대한 자세와 태도, CS,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직원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전까지 매주 피드백을 통해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일상홈’ 프로젝트 (0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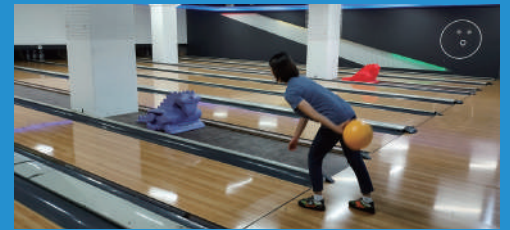
염OO님은 회복기 참여자로서 빠른 복귀를 기대하며 일상홈을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외출준비를 치료시간에 배운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한 결과로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었고, 몇몇 어려운 점을 체크해가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차로 구포에 있는 참여자의 집에 도착하여 집안 곳곳을 살펴보고는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곳과 진입이 가능한 곳 등을 체크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휠체어가 크면 클수록 갈수 없는 곳이 많이 생길 수 있음을 깨닫고 휠체어 구매 시 참고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막상 부딪히고 보니 어찌하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스포츠체험(볼링) (09.05)

김OO, 이OO님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링종목으로 스포츠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하여 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볼링은 가볍게 즐길 수 있고, 핀이 넘어 질 때의 쾌감과 스트라이크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어서, 체험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녀오면서 친구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생겨서 기쁘고 답에는 내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휠체어스쿨_고급반 (09.12)

이OO님 외 4명의 참여자님은 초급과정 4회, 중급 4회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로 실전에서 일어 날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여, 차후 일상회복을 위한 자신감 회복을 위해 외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밤바다를 배경으로 파도소리를 벗삼아 힘찬 걸음을 함께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는 버스킹과 분수쇼, 해운대시장에서의 군것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잘 따라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고, 퇴원예정 참여자의 환송파티도 커피점에서 간단히 하였습니다.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와 함께 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09.19)

이00님의 8명의 참여자는 부산장애인식개선센터 주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6회 마지막 수업으로 이때까지의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골든벨’을 진행하였는데 김00님과 박00님이 동점으로 공동 우승하여 상품도 받게 되었습니다. 정규프로그램을 마치고 이 다음은 심화과정으로 2회를 하게 되는데 이과정도 많이 참석하여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화과정은 직업으로 연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으로 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 부산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 & 이레엠케어방문 밖으로 한걸음씩 (09.06 / 09.07)

김00님은 사회복귀하면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참여자이고, 원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참여면서 가지게 된 자신감으로 어떤 일들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취업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자 참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보기 전에는 장애인의 직업이 특히 휠체어장애인의 직업이 어떤 형태 일까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을까에 대한 걱정으로만 쌓였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도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다녀오면서 그래도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찾았고, 나의 진로에 대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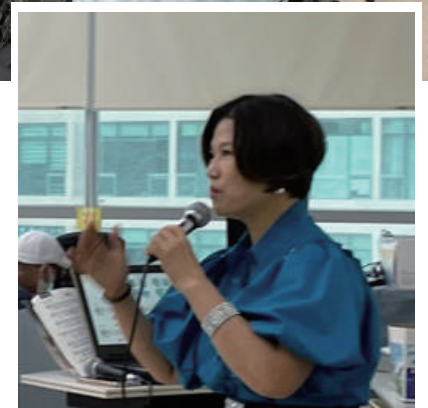
박00님과 박00님은 본인에게 맞는 휠체어 구매가 필요한 사항이라 구매를 위해 휠체어 구매업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차를 타본 경험이 없어 다소 피곤하기도 했지만 즐거워하는 모습이었고, 휠체어의 위치조정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박00님의 어머니께서 다녀와서 연신 감사의 표현해주셨는데, 앞으로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며 또 화장실이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한가득 이었는데, 덕분에 오늘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하였다고 뒤풀이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너무 보람을 느낄 수 있어 기쁩니다.



웃음 레크리에이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 김미애 강사 (09.02)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 김미애 강사님의 웃음 가득한 노래교실, 색소폰 연주자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이자 레크리에이션 시간,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직원이 함께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목청껏 노래하고 싶었던 마음을 맘껏 펼친 신명나는 날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재활생활



진정한 배려를 위해 먼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오던 것, 사물, 디자인까지 불편한 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디자인 변화를 통한 배려부터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배려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를 넘어 일상의 삶으로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조은호 강사 (09.16)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손뜨개 프로그램, 털몽치 공방 '도토리 낙엽 키링 만들기' (09.13 / 09.20)

이번 달에는 '도토리 낙엽 키링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바늘 사용이 처음이신 참여자와 보호자는 기초반을 통해 코바늘 기초를 배우고 이전에 코바늘 사용 경험이 있는 분들은 중급반에서 도토리 낙엽 키링을 만드셨습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코바늘 기초를 배우고 각자의 색이 담긴 도토리 낙엽 키링을 직접 뜨며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털몽치 공방이 9월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털몽치 공방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참여자 및 보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전통소반 만들기' (09.21)



이번 프로그램은 추석을 맞이하여 단 하나뿐인 '전통소반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아이스브레이킹, 추석 하면 떠오르는 음식 빙고게임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전통소반을 아크릴 물감으로 직접 칠하고 개성을 살려 장식을 붙이고 마무리 단계로 코팅 작업을 하였습니다.

참여자와 보호자께서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동안은 아무런 걱정과 고민 없이 집중만 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하셨습니다.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전통소반을 완성한 후 즐거움을 나누며 따뜻한 추석 분위기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룹치료 프로그램 굴청만들기 (09.20)



프로그램 시작 전 네 단어퀴즈를 통해 분위기를 환기 시킨 후 굴이 가진 다양한 효능과 간단한 설명이 담긴 유인물로 굴청 만드는 법을 숙지하였습니다.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굴껍질을 직접 벗긴 후 몇 개는 믹서기로 갈고, 몇 개는 식감을 위해 손으로 으갠 뒤 열탕 소독을 거친 유리병에 설탕과 굴을 곱게 담아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철과일 굴을 활용한 건강 디저트를 만들어봄으로써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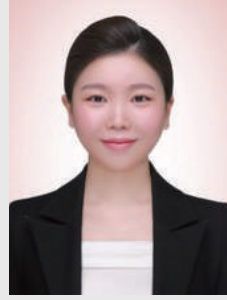
우리는 가족입니다. 9월의 신규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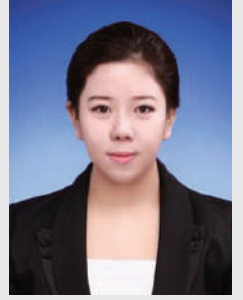
영상의학과 신수영 진료과장



간호팀(6W) 임정아 간호조무사



간호팀(5W) 이나현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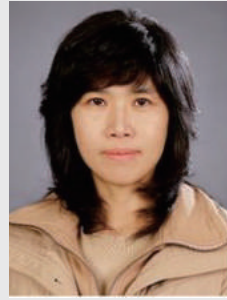
간호팀(7W) 안지숙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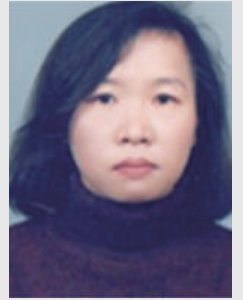
간호팀(5W) 구주현 간호조무사



간호팀(6W) 최정아 간호조무사



간호팀(6W) 김수현 간호조무사



간호팀(6W) 김정아 간호조무사



간호팀(6W) 이광자 팀원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찾아가는 서비스

이미용프로그램 (09.12 / 09.22)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달 이미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참여자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84명이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본원의 나눔에 동행해 주신 이미용 자원봉사자에게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추석맞이 특별 프로그램 달아달아 한가위를 부탁해 (09.25~27)



매년 추석이면 TV에서 추석 특선영화를 상영합니다. 본원에서도 추석을 맞이하여 정겨운 추석의 분위기를 느끼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최신 추석 특선영화 '비공식작전'과 '밀수'가 9층 회의실에서 상영되었습니다.

많은 참여자 및 보호자가 관심을 보이고 참석해주셨으며 영화 관람을 통해 함께 모여 웃고 소통하며 추억을 만들어가셨습니다.



사회사업팀에서는 참여자와 보호자, 그리고 해나행인이 병원에서 즐거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작년 성원에 힘입어 더욱더 풍성해진 '달아달아 한가위를 부탁해 season2'로 돌아왔습니다.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와 전통 먹거리, 다양한 문화 체험에 참여함으로써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해나행만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통해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소소한 추억을 만들어가셨습니다.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

4대, 5대 꿀걱왕 수여

(09.14 / 09.21)



재활 2팀 연하파트에서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연하파트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게 된 TF는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삼킴 기능이 향상되어 연하치료를 종결하게된 분들을 기념하고자 "꿀걱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상장을 수여하고 연하치료실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6월부터 실시하게 되었고 지난 9/14일 제 4대 꿀걱왕(남○○님)이 탄생하였고, 1주 뒤인 9/21일 제 5대 꿀걱왕(양○○님)이 탄생하였습니다.

평소에 표정으로 내색을 많이 하지않는 편이시라던 남○○님께서 저희가 병실에 찾아가니 입가에 미소를 지어주시며 기쁘게 소감표현을 해주셨습니다 ^^

담당선생님들과 병실에 저녁식사 전 서프라이즈로 찾아가니 누구보다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시던 양○○님과 보호자분을 보니 날씨는 살짝 쌀쌀해졌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보람찼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부탁드리며, 꿀걱왕이 되신 분들께 축하의 한마디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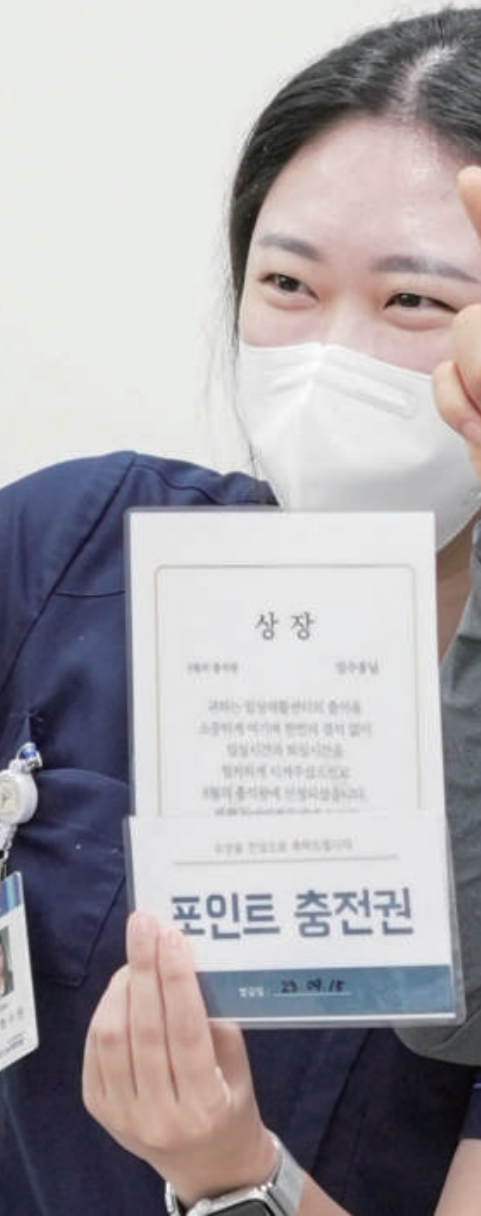
일상재활센터 (낮병동)

출석왕 자립왕 수상 (09.15)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찾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석왕 & 자립왕'을 매월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수 출석왕에는 송○○님, 임○○님이 선정되었고, 우수 자립왕에는 김○○님, 김○○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계속 파이팅입니다!!



설득을 위해 필요한 것은?

논리만큼이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는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가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그와 반대되는 답을 해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반항의 태도였고, 내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호흡을 짧게 가다듬었다. 그리고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짧게 내뱉었다.

“불경이요!”

그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다. 순간 멈칫했다. 수많은 학생을 접해왔지만 이런 대답은 처음인 듯 당황해 보였다. 하지만 이내 침착하고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불경은 아시아에서 베스트셀러일지는 몰라도,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래네.”

나의 대학 전공은 '방사선학'이다. 보통 졸업을 하면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된다. 물론 보건소나 연구소 등 시험과 스펙을 더 쌓아서 도전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병원으로 향한다. 3학년 여름방학이면 학생신분으로 실습을 나간다. 부산에서 규모가 큰 병원들 중 거주지 관련 희망하는 병원으로 선택한다. 그 해 여름 나는 집과 가까운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선택했다. 지역에선 고신의료원 또는 고신대병원으로 불린다. 정식명칭에 '복음'이라는 글자에서 느껴지듯이 철저한 종교적 색상이 강한 곳이다. 잘 모르긴 하나 이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던지, 기독교 관련 무언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난 애당초 관심이 없었다. 난 실습생일 뿐이니깐.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5명 정도의 실습생은 다양한 부서로 배치되었다. 지금은 영상의학과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지만, 그 당시는 방사선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었다. 일반방사선촬영실, CT실, MRI실, 혈관조영실, 핵의학실 등 다양한 부서에서 며칠간 배우고 다음 부서로 이동하는 순환식 실습제도였다. 어느 부서에 옮기든 종교에 관한 이야기와 교회 참석에 관한 권유는 존재했었던 거 같다. 우리 실습생이니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어떤 선생님은 실습생인 우리들에게 특정 교회에 올 것을 권유했고, 마침 종교가 기독교인 실습생 친구들은 주말에 그 교회에 가기도 했다. 종교가 일치하는 상황에서는 종종 있는 듯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내겐 익숙지 않는 풍경이었고, 2998, 2999, 3000! 철퍼덕, 내 머릿속은 까까머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고등학교에서는 서클이라는 특별 모임과 활동이 존재한다. 다양한 운동종목을 취미로 하는 서클에서부터 문학적 취미가 비슷한 모임 그리고 종교적 모임 등이 있었다. 나는 그 중 불교부였다. ○○ 불교학생회라는 명목으로 주말이면 타 여고학생들과 절에서 학생회 모임을 가졌고, 다양한 활동을 했다. 석가탄신일 연등행사 준비에서부터 여름이면 하계수련회 등을 진행하였고 그렇게 3년 내내 공부와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시간들을 채워나갔다. 108배는 기본이고, 1080배와 그 어렵다는 3000배도 경험했었다. 팔뚝 어딘가에 향 3개를 순간적으로 붙이는 행동(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을 하고 나서야 정식으로 수계도 받았다. 수계명도 있다. 지나고 보면 적극적인 종교학생회 활동이었지만 대학 입학과 함께 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종교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다. 지금은 그냥 종교가 있냐는 질문과 서류상에 기재하는 곳 정도만 불교를 이용한다.

서로 다른 생각들의 '부딪힘'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생각의 탄생을 위한 '마주침'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다름이 지금보다 나은 가치를 향하기 위해선 더 많이 부딪치고 마주쳐야 합니다. _강민호《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터어라운드)

정신을 차리니 다시 실습실 공간이었다. 이번 실습장소의 선생님(그 당시 실장님)은 종교에 대한 철학이 남다르기로 소문이 나있었다. 집요하다고 했다. 한 날 실습생인 내게 기독교에 대한 역사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하나님, 기독교, 교회, 구원, 전도 등 낮은 용어들이 나열된다. 어김없이 기독교를 믿을 것을 권했고, 교회에 나올 것을 권했다. 내 반발심은 어느새 실습생과 실장님간의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1시간가량 공격과 방어가 오갔다.

“실장님,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오라고 권하는 건가요? 저는 불교이지만 절에 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말이지, 내가 죽고 난 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많은 구원활동을 펼쳤는지에 따라 천당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되는 거라서 그렇다네.”

이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른다. 나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도 없었다. 그저 자꾸 교회오라는 것이 싫었던 실습생이었을 뿐이다. 그 해 여름 나는 결국 어느 교회에도 한 번 가지 않았지만, 무려 9학점이나 되는 실습과목을 당당히 A+로 마쳤다. 여전히 그곳과 그곳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중심의 치료를 시행하고, 전도와 교육을 실천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설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논리'라고 대답했다. 물론 논리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만큼이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대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은 나에게 끌리게 되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_박용후《관점을 디자인 하라》(프롬박스)

창조주인 하나님, 즉 위로부터의 초월 계시를 믿는 기독교와 아래로부터의 방법론을 추구하며 깨달음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불교가 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극락을 간다는 보편적 믿음이지만, 난 여전히 종교적 색상에 관심이 적은 편이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실습생 시절, 여전히 지식이 부족한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가 낮긴 여전히다. 다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 실장님의 설득에는 논리보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본인이 생각하는 논리를 앞세워 상대를 설득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상대에게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종교에는 공감대가 어려운걸까?

대화는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아닐 것이다. 일치의 쾌감과 다름의 묘미가 공존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마주침과 부딪힘이어야 더 좋은 관계맺음을 유지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의 '부딪힘' 새로운 생각의 탄생을 위한 '마주침'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3년 09월 27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